

보도일시 (인터넷) 2026. 9. 29.(화) 12:00
(지면) 2026. 9. 29.(화) 석간

배포 2026. 9. 28.(월) 14:00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 최초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 9월 29일(화) 개관식 이어 30일부터 본격 운영...내륙 주민의 해양 문화 향유 기회 넓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29일(화) 내륙 지역 최초의 국립 해양 문화 시설인 국립청주해양과학관(관장 남기헌)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9월 30일(수)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중심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해양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개관식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이장섭 청주시장 등 각계 인사와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시작을 축하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과학으로 본 해양, 해양에서 찾은 미래’를 전시 주제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등 인류가 마주한 과제를 해양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총사업비 983억 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14,980 m²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규모로 건립되었다.

주요 전시 공간으로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자원 고갈 등과 같은 해양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미래해양전망관(3층)과 바닷속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관찰하는 실감형 영상체험관인 디지털아쿠아리움(2~3층), 해양 쓰레기의 문제점과 깨끗한 바다의 중요성을 놀이를 통해 체험하는 어린이 해양체험관(1층) 등이 있다.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개관을 기념하여 9월 30일(수)부터 10월 5일(월)까지 전시관별 스탬프 투어를 완료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마술 공연도 10월 3일(토)부터 5일(월)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9월 30일(수)부터 유아·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강 따라 바다로!’, ‘바다 친구들의 집을 지켜라!’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관기념 기획 전시인 ‘시작, 새로운 물결’도 함께 막을 올린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연안과 내륙의 경계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해양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관이다."라며, "과학관이 내륙 해양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더 많은 미래 세대가 바다를 배우고 탐구하여 해양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병구 (051-773-5220)
		담당자	사무관	변성빈 (051-773-5229)
담당 부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경영기획실	책임자	실 장	이주연 (043-200-1010)
		담당자	부 장	김지혜 (043-200-1011)